

어느 에이즈 환자의 눈물

9년 전 미국 애리조나대에서 논문준비를 하고 있을 때다.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 최종 실험하고 있는 동물보호건물을
 동물해방전선 소속 회원들이 습격, 1천2백마리의 실험동물을 약탈하고 방화한 사건이 일어났다.
 에이즈에 감염된 채 사라진 이 동물들도 걱정이지만 새로 개발해
 최종 실험중인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는 대학병원의 입원환자가 더 걱정이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실같은 희망을 걸고있는 이들 환자에게
 어떻게 이 사건을 설명해야 할지...

1989년 4월 2일 새벽 4시, 미국 애리조나주 사막의 도시 투산,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내음이 완연한 시간. 나는 그날도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논문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조용한 적막을 가로 지르고 사이렌 소리가 지나간다. 또 어디에서 사고가 났나보구나.. 참 안됐구나 하고, 나의 생각은 잠시 지나가고 다시 나의 시선은 컴퓨터 모니터를 향한다. 그러나 멀리 사라지는 사이렌 소리가 그날따라 웬지 오래 들리는 것 같다. 얼마나 지났을까...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 모두들 잠든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웬지 더욱 가파르게 들린다. 이 시간에 웬 전화일까? 한국에서 온 전화일까? 급하게 달려가 전화를 받는다. 지도교수인 스텔링박사의 다급하게 숨이 찬 목소리였다. 학교의 실험동물이 있는 건물이 불에 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갑자기 아찔해지는 순간이다. TV를 틀어 보라고 했다. 즉시 화염에 덮여 있는 낯익은 빨간 벽돌 건물이 보인다. 어젯밤에도 들어갔던 곳이었다. 미국 브리스톨 마이어 제약회사와 공동연구로 후천성 면역결핍증인 에이즈(AIDS) 치료약을 개발하여 최



趙明煥
 <건국대 이과대 생물학과 교수>

종 실험을 하고 있는 동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었다. 나는 즉시 학교로 달려갔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분주히 움직이는 소방대원들과, 취재에 여념이 없는 기자들, 카메라맨 그리고 동물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이었다.

실험동물 약탈해 간 ALF대원들

지도교수와 나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할 말을 잃었다. 실망과 허무함이 교차되는 순간이었다. 미국의 악명높은 '동물해방전선 (Animal Liberation Front)' 소속 대원들이 과학의 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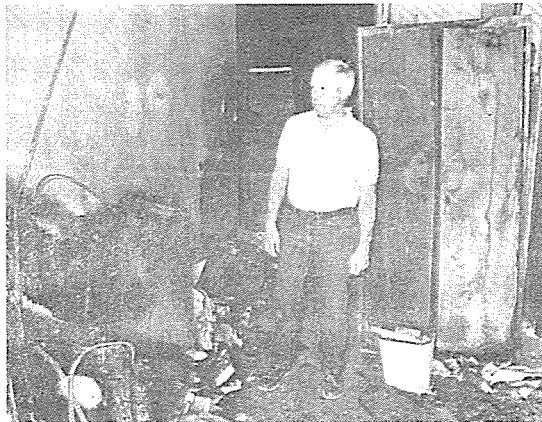


▲ 일간지에 나왔던 만화 삽화

아래 인간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애리조나대학교 실험동물동을 습격하였다. 동물실험을 더이상 못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물들을 몽땅 가지고 도망간 사건이었다. 침팬지, 토끼, 양, 쥐, 개구리... 1천2백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모두 없어지는 큰 사건이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목표지점을 정하고 공격하는 ALF라는 이 단체는 미국의 대표적인 동물해방단체이다. 공교롭게도 막대한 돈을 들여 최신 설비로 준공한지 얼마 안되는 애리조나 대학 실험동물 연구동이 이들의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그날 미국 모든 매스컴들이 톱뉴스로 보도했다. ABC, NBC, CNN 등 미국의 방송들과 신문들은 이들의 만행을 보도하였으며, 동물이 인류의 질병 퇴치를 위해 연구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미국 전역은 다시 뜨거워졌다. 미국 국회에서는 상원의원을 파견하여 실상을 조사하였고, 정부에서는 이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전국에 체포령을 내리게 되었다.

치료제 개발 동물실험에 찬반론

우리는 절망감에 쌓였다. 지난 오랜 기간의 실험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막대한 연구비와 노력에 대한 허탈감 또한, 그들이 가져간 동물중에 에이즈바이러스(HIV)로 감염된 동물들이 있었다. 연구 데이터의 손실보다는 개발한 약의 치료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중인 동물들로 인한 인체 감염 위험성이 큰 걱정이었다.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들이 자연에 방출되어 사람과 접촉하게 될 경우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자회견을 가져 동물들을 자연에 방출하지 말아줄 것과, 시민들에게는 에이즈바이러스와 각종 병원균으로 감염된 동물들이 우리 환경에 방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동물들과의 접촉을 삼가해 달라는 내용을 TV를 통하여 알렸다. 미국 매스컴에서는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들을 과연 그들이 동물 해방이란 명목으로 자연에 그대로 방출할 것인가에 큰 관심을



▲ 지도교수 Charles Sterling박사의 현장방문 모습

두었다. 여론은 이들에게 불리하게 가고 있었고, 사람보다도 동물을 더 위하는 사람들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다음날 동물해방전선 소속 사람들이 복면을 쓴채 자체적으로 제작한 비디오 테이프를 방송국에 보내왔으며 저녁 뉴스를 통하여 방송되었다.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을 해방시켰을 경우 그들에게 쏟아질 여론의 나쁜 인식을 두려워 했는지, 그들은 모든 동물들을 아직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 동물들이 완전히 치료되기 전까지는 자연으로 방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였다. 우리는 그 뒤 이들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성 전화와 편지로 시달려야 했으며 한동안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만 했다. 그들이 감염된 동물을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지금까지 이들 동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 들은 적은 없다.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이 어디엔가 돌아다니고 있겠지만, 사람을 무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실험동물동이 화염에 쌓여 타고 있는 동안 지도교수와 나는 서로 말없이 한동안 마주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잃어버린 동물들과 실험 데이터 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또다른 걱정이 있었다. 바로 며칠 후면 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치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애리조나대학병원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이었다. 이들에게 이젠 전혀 희망이 없어졌다. 그동안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으며 대부분 한 두달 이내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발한 치료약으로 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동안의 실험 결과는 희망적이었으며, 우리 연구팀은 최소한 이들의 생명을 6개월까지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마지막 확인단계인 동물실험만 끝나면 임상실험에 들어가기로 하였는데, 모든 계획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며칠 뒤면 새로운 치료약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무어라고 설명해야 할지...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

새로운 치료제 기다리는 에이즈환자

나는 결국 그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다. 이들은 모두 심한 설사로 인한 탈수현상으로 생명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는 환자들이었다. 먼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32살의 스티븐이 있는 방으로 갔다. 그는 오랫동안의 투병과정에서 이미 기력이 많이 빠진 상태이지만, 무슨 좋은 연구 결과를 가져왔나 하고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에게 지난 며칠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며 이번에는 개발된 치료약을 사용할 수 없음을 말해주었을 때,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가 고여 있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떨어지는 눈물 속에서 생을 포기한 절망이 함께 흘러 내리는 것 같았다. 어느새 내 손등에 나의 눈물도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돌보아 준 것을 감사한다며,

나는 이렇게 가겠지만 에이즈는 하루속히 정복되기를 바란다며 머리를 떨군다. 그는 그로부터 2주 뒤, 하루 10리터나 되는 설사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옆방에 있는 3살된 아이린이라는 여자 아이에게 갔다. 이 어린이는 감염된 엄마가 임신하게 되어 에이즈바이러스를 갖고 태어나게 된 아이이다. 엄마는 이미 에이즈로 사망하였고 지금은 할머니가 보살피고 있는 가슴아픈 아이였다. 할머니는 동물해방전선은 동물의 생명은 귀하고 사람의 생명은 귀하지 않느냐면서 주름진 얼굴 사이로 흐느끼고 있었다. 아이린은 어른들의 복잡한 세상은 모르는데 천진한 모습으로 꿈 인형을 안고 새록새록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근심이 전혀 없는 평온한 천사의 모습이였다. 고요히 맑은 숨소리를 내며, 그리고 좋은 꿈을 꾸는지 입가에 가끔 미소를 띄며 잠자고 있는 아이린... 이 아이의 몸 속에 그 끔찍한 에이즈바이러스가 있다는 현실이 받아지기 어려웠다. 아이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고 싶었는데... 내가 가면 그렇게 좋아하던 예쁜 꼬마 친구 아이린은 그로부터 얼마 안되어 우리의 곁을 떠났다.

하늘은 이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건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왜 그리 맑고 청정한지 야속하게만 보인다. 병원 건물 안에는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희망 모두가 교차하는데 하늘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을 내려다 본다. 나는 사막의 햇살을 받으며 걷는다. 지난 한해동안 생과 死를 오가는 그들과의 많은 만남 속에서 함께 웃고 고통을 나누기도 하였는데, 그들의 떠나는 마지막 모습이 나의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ALF, 그들은 동물들을 과학이라는 고문에서 해방시켰다고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 동물들이 없어 힘없이 걷는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에이즈 치료에 관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던 노벨의학상 수상자 블럼버그 박사가 어제 보내온 e-mail 내용의 한 귀절이 갑자기 떠오른다. '과학은 매일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①7



▲ 현장사진